

좋은 회사, 좋은 제품, 좋은 사람

# 뉴스킨의 지속 가능 경영 이야기

선의를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뉴스킨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최근 뉴스킨이 선택한 키워드는 '지속 가능 성장'.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늘려나간다는 새로운 경영 철학이다.

세계 곳곳에서 결실을 맺고 있는 뉴스킨의 착한 행보를 따라가보자.

뉴스킨 지속 가능 경영,  
그 첫 번째 이야기

제품 **PRODUCT**



**원료는 까다롭게, 과정은 엄격하게 6S 품질관리공정**

뉴스킨의 모든 제품은 다음 여섯 단계의 품질관리공정을 통해 생산한다. 뉴스킨이 개발한 독자적 기준 아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이 완성되는 것.



## 1S · **원료 선정** Selection

모든 원료의 과학적 정보를 수집, 연구하여 유효성 및 적합성, 안전성을 확보.



## 2S · **원료 수급** Sourcing

다양한 원료들의 유용성, 품질, 핵심 성분 함량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



## 3S · **규격** Specification

일관된 품질을 위해 기능성분과 원료, 완제품 기준을 바탕으로 한 까다로운 규격 설정.



## 4S · **표준화** Standardization

표준화된 품질관리로 뉴스킨만의 변함없는 양질의 제품 생산.



## 5S · **안전** Safety

건강기능식품과 스킨케어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많은 품질 규격 분석 시험을 수행.



## 6S · **기능 입증** Substantiation

모든 제품은 과학적 논문 및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기능성 정보를 제공.

뉴스킨 지속 가능 경영,  
그 두 번째 이야기

## 환경 PLANET

### 지구를 살리기 위한 뉴스킨의 착한 노력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지켜야 한다.

뉴스킨이 다방면으로 실천하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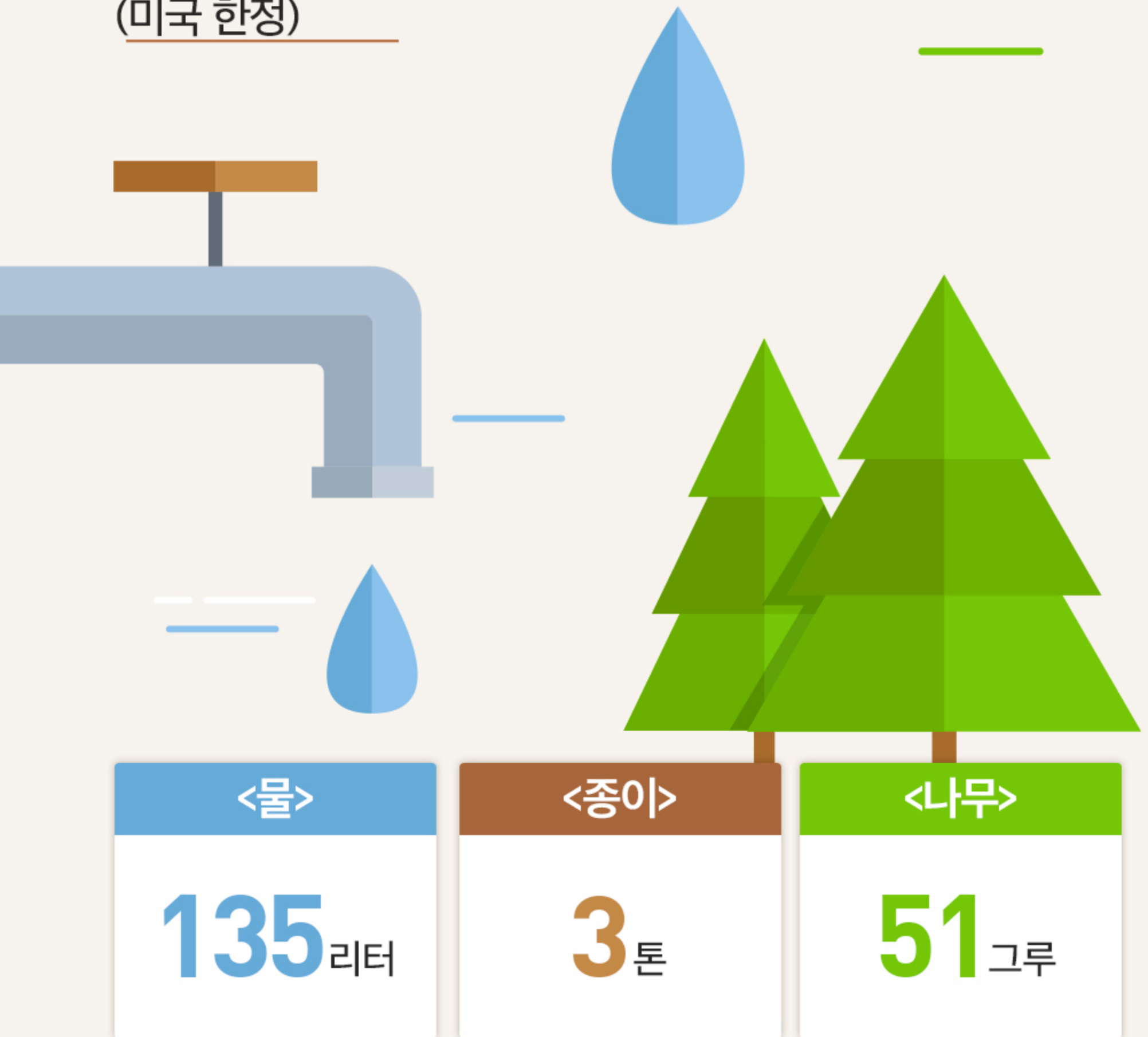
환경보호 활동들.



# 에이지락 유스스팬3의 포장 제거 작업만으로 지킬 수 있었던 자원의 가치!



(미국 한정)



에이지락 루미스파 디바이스  
패키지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지킬 수 있었던 자원의 가치!



(1년 기준)



<물>

**4,800**리터

<종이>

**178**톤

<나무>

**3,017**그루

## 에이지락 루미스파에

## 친환경 포장을 적용한 결과!

재활용 소재 **25%** · 재활용 가능 소재 **99%** 사용



폐기물

**26%** 감소

포장재 부피

**32%** 감소

## 건물도 친환경으로!



뉴스킨의 2대 주요 시설로 꼽히는 미국 이노베이션 센터와 중국 이노베이션 파크 두 건물 모두 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 건물. 이는 곧 국제적으로 친환경 건축물임을 인증 받았다는 의미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 LEED는 주로 에너지 절감과 자원 재활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미국 이노베이션 센터와 중국 이노베이션 파크는 모두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 뉴스킨은 지속가능운영위원회를 통해 두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거나 썩지 않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줄이려는 세계적인 움직임



뉴스킨 지속 가능 경영,  
그 세 번째 이야기

사람 PEOPLE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뉴스킨의 선한 영향력**

선의의 힘이 가져올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

전 세계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뉴스킨이 펼치고 있는 사회 공헌 활동들.



## 섬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1998년에 설립한 뉴스킨 포스 포 굿 재단은 해양학 재단과 함께 빈곤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에포크 제품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 공헌 기금으로 조성해 섬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 상하수도 시설은 물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에만 약 1000만 평의 대지를 보호했고, 방글라데시에는 망그로브 나무 교육 센터와 해안 산책로가 생겼다. 마다가스카르에는 커뮤니티 센터를, 미크로네시아에는 여성회관을 짓는 등 세계 곳곳의 섬에 선의의 힘을 전파하고 있다.



## 아이를 자라게 하는 ‘희망의 씨앗’

지난해 말라위 전역에 3만6000그루 이상의 과일나무를 심고, 9000여 가정에 구아바와 아보카도 등 토착 과일나무를 제공한 뉴스킨. 취약 계층 아이의 건강과 그 가족의 수입에 도움을 주어 아이들 삶에 희망을 전하려는 취지다. 동시에 산림 벌채 문제가 심각한 말라위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장기적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 더 나은 삶을 위한 '희망의 우물'

뉴스킨 포스 포 굿 재단은 지난해 아프리카 말라위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현대식 우물 55개를 만들었다. 물을 길기 위해 30분 이상 걸어야 하고, 우물물도 깨끗하지 않아 질병에 걸리곤 하던 주민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마을에서 20m 거리에 마련한 건강한 우물. 이제 아이들은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주민은 그간 짓지 못하던 농사를 다시 시작했다.



## 주민의 자급자족을 위한 '가족자립농업확대 프로그램'

일시적 기부나 지원이 아닌, 주민이 자립할 방법을 고민하는 뉴스킨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농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뉴스킨 포스 포 굿 재단은 말라위 정부와 협력 관계를 맺고, 정부 산하 농업 종사자를 훈련시켜 지역 주민에게 농업 기술을 전파하도록 돕고 있다. 2018년에만 1300명 이상의 농부를 배출했고, 지금까지 총 5785명의 농부가 농업 기술을 배웠다.



## 바이타밀로 전하는 희망

올해 뉴스킨은 말라위 음담브웨 마을에서 바이타밀 배포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뉴스킨 코리아 세일즈 리더들은 아이들을 위해 분필과 지우개 등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며,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냈다. 이 외에도 뉴스킨은 말라위에 바이타밀 생산 공장을 지어 현지 주민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8월 까지 6억 끼가 넘는 바이타밀을 공급한 뉴스킨은 아이들이 더 이상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